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갹갱

일시	09 월 30 일 16 : 00 상상파크플러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강연경(2393108)	O
	배도현(2293094)	O
	민경욱(2393102)	O
	이채원(2393076)	O
	장수정(2393033)	O
진도	도서명: 단 한 사람	진도페이지: 5 p. ~ 58 p.



1주차

[좌측부터 민경욱, 강연경, 장수정, 이채원, 배도현]

토론 주제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토론 내용

배도현: 목화, 목수, 금화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특히 금화의 눈물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본인이 외동으로 자라 형제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형제 관계 속에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다고 한다.

이채원 : 월화의 사랑 표현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지만, 상대방은 기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대목에서 사랑의 양면성과 오해가 잘 드러났고, 그로 인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꼈다고 공유했다.

장수정 : 월화가 백일장에서 쓴 글에 주목했다. 특히 “심장에 거북이 문신이 있었다”라는 독특한 표현이 인상 깊었다며, 평범하지 않은 사고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글쓰기가 신기했다고 언급했다.

민경욱 : 나무가 인간에 의해 베어졌을 때 느낀 애처로움, 그리고 그 뒤에 짹을 틔우는 장면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고 말했다. 또한 나무 때문에 사고가 나는 부분이 앞선 이야기와 연결되며, 인간적이면서도 편협한 생각들이 흥미로워 책의 전개가 더 궁금해졌다고 했다.

강연경 : 나무 이야기를 읽으며 식물에도 감정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실제로 꽃을 보면 “예쁘다”라는 말을 건네는 자신의 경험과 연결되어, 작품 속 이야기가 현실의 감각과 맞닿아 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일시	10 월 14 일 16 : 00 상상파크플러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강연경(2393108)	O	
	배도현(2293094)	O	
	민경욱(2393102)	O	
	이채원(2393076)	O	
	장수정(2393033)	O	
진도	도서명: 단 한 사람	진도페이지:	5 p. ~ 155 p.
2주차	<p>[좌측부터 민경욱, 강연경, 장수정, 노병국 교수님, 이채원, 배도현]</p>		
토론 내용	<p>토론 주제 : 목화의 라일락 나무</p> <p>이채원 : 목화의 라일락 나무는 목화의 마음, 목화의 사랑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을 사랑했던 목화는 라일락 나무를 정성스럽게 보살피며 마음을 드러냈지만, 정원에게 점점 방치되며 사랑이 식어가자 목화는 결국 라일락 나무를 뿌리째 옮겨버립니다. 라일락 나무를 옮긴 것은 목화가 더 이상 정원의 세계에서 사랑이 자랄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마음 (라일락 나무)를 회수하여 마음을 끓어낸 것입니다.</p> <p>배도현 : 나도 목화의 라일락 나무는 목화가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정원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라일락 나무를 키우고 라일락 나무의 화분을 갈아주었지만, 정원은 목화를 돌보지 않았다. (사랑이 식어감) 이후 그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다시 묻히는데 정원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결국 목화는 그사이 가지를 잘라서 목공소에 화분을 심는데, 정원 없이 살아갈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p> <p>장수정 : 라일락 나무는 목화 자기 자신을 투영시킨 존재. 그리고 그 나무가 담겨있던 화분이 정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사랑을 시작하며 정원의 집에서 라일락 나무는 썩을 틔우고, 무력무력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을 때 목화가 정원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라일락 나무를 화분에서 뽑았다가, 다시 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목화가 자신에게서 정원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지 가능해 보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정원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기에 다시 심었지만, 목화는 다음 방문 때 한쪽 가지를 잘라 다른 화분에 심어 목공소에 두었고, 곧 이 장면이 목화의 관심이 정원을 떠나 목공 작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p> <p>강연경 : 목화의 이야기에서 라일락 나무는 그녀의 감정을 그대로 비추는 상징처럼 보였다. 사랑이 넘치던 초반에는 라일락 나무도 푸르고 생기 있었지만, 목화가 연인에게서 점차 뒷순위로 밀린다고 느끼면서 나무 역시 시들어 갔다. 결국 라일락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는 장면은, 목화가 더 이상 관계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모습처럼 느껴졌다.</p> <p>민경욱 : 사랑이 뭔지, 그녀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내 사랑은 단 한 사람인데. 어떻게 시들 수 있지 그 사람이 내 사랑이었다면 알아보지 않았을까. 목화의 사랑과 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에겐 단 한 사람이다. 죽음도 함께하고 싶은. 나의 생이자 죽음인 단 한 사람.</p> <p>감히 말한다. 내가 그녀가 아니지만 민경욱은 라일락 나무던, 개시이던 모든 생에, 나임에, 주어진 생에, 눈을 뜰 수 있음에, 하늘이 존재함에. 스물다섯의 지금의 나로 사람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이 있음에. 지독한 세상에 태어남에 감사한다.</p>		

	일시	11 월 04 일 16 : 00 비대면 화상 회의 (Google Meet)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강연경(2393108)	O	
	배도현(2293094)	O	
	민경욱(2393102)	O	
	이채원(2393076)	O	
	장수정(2393033)	O	
진도	도서명: 단 한 사람	진도페이지:	5 p. ~ 222 p.
3주차	 <p>[좌측부터 강연경, 배도현, 민경욱 / 이채원, 장수정]</p>		
토론 내용	토론 주제 : 일화의 딸 루나		
	<p>이채원 : 장미수, 임천자, 목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했지만, 루나는 처음으로 그 능력을 스스로 원하고 선택한 인물이다. 한 번 나무에게 구원받은 적 있는 루나는, 구원받은 적이 있어서인지 더욱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나무가 오랫동안 홀로 외롭게 견뎌왔다는 사실도 알아보고, 그 곁을 자발적으로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다. 이전 세대가 모두 '선택된 사람'이었다면, 루나는 자신의 운명을 직접 선택한 첫 번째 세대다. 그래서 나는 루나를 기점으로 <단 한 사람>의 정서가 슬픔에서 천천히 희망 쪽으로 기울었다고 느꼈다.</p>		
	<p>배도현 : 루나는 자신의 나무를 보면서 외롭다고 스스로 구하고 싶어 하는데, 직접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윗세대들에게는 두려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루나에게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루나의 이야기가 자세히 이어지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알아내서 새로운 경지에 다다를 것 같다.</p>		
	<p>장수정 : 미수와 루나는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는 대체로 모든 것은 타의(신, 운명)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두려워하면서 증오합니다. 그래서 루나가 죽으려고 했을 때도 그게 오직 그 아이의 선택이었을까, 나무가 루나를 지목했겠지. 등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루나의 모든 행동은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고민한 결과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루나는 바로 실천하는 성격이기도 하면서 가장 나무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작가의 나무에 대한 애정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p>		
	<p>강연경 : 루나는 다른 등장인물들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존재였다. 많은 인물이 원치 않은 능력 때문에 고통받고 혼란스러워하는 반면, 루나는 스스로 그 능력을 원했고 받아들이려 했다. 과거에는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해 스스로를 해칠 뻔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힘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인물로 성장해 있다. 이 변화는 루나가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의지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의 성장은 책 전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능력을 짐처럼 느끼던 인물들이 만들어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루나는 희망과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이야기의 결말 역시 루나의 존재 덕분에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인 여운을 남긴 것 같다.</p>		
	<p>민경욱 : 한없이 인간 같은 어머니 품에서 태어난, 한없이 인간 같은 아이. 하나도 슬프지 않고 애처롭지도 않다. 너무나 축복받은 아이</p>		

	일시	11 월 25 일 16 : 00 상상파크플러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강연경(2393108)	O	
	배도현(2293094)	O	
	민경욱(2393102)	O	
	이채원(2393076)	O	
	장수정(2393033)	O	
진도	도서명: 단 한 사람	진도페이지:	5 p. ~ 255 p.
4주차	 <p>[좌측부터 배도현, 이채원, 노병국 교수님, 강연경, 민경욱, 장수정]</p>		
토론 내용	토론 주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장		
	<p>배도현: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언어로는 말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임천자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목화에게 전했다. 스스로 구하라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면 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지에 대하여 공감이 가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구절이 생각에 깊게 잠기게 하는 느낌이었다. 		
	<p>장수정: “지금을 기다렸어. 수없이 연습했지. 사람을 살리던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을 위한 연습이었을 거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마지막 남기는 말이 결국 나무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이 임천자와 다른 중개자의 삶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p>강연경: “어떤 사랑은 끝난 뒤에야 사랑이 아니었음을 안다. 어떤 사랑은 끝이 없어서 사랑이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떤 사랑은 너무 멀리 있어서 끝이 없다. 어떤 사랑은 너무 가까이 있어 시작이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이 항상 선명한 감정이 아니라, 거리와 시간, 상황 속에서 형태가 달라지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인상 깊었다. 		
	<p>민경욱: “임천자의 단 한 명은 기적. 장미수의 단 한 명은 겨우. 신목화의 단 한 명은, 단 한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다르지만 다 같은 삶이며, 모두가 단 한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같은 ‘단 한 사람’을 두고도 인물마다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점이 흥미로웠음. 특히, 장미수와 신목화는 사람을 구하는 일을 저주처럼 여기며 피하고 싶어 했지만, 루나는 그 일을 진심으로 원하고 갈망하던 인물이라는 점이 대비적으로 느껴짐. 똑같은 행동이라도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반대의 감정과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강연경 (2393108)	<p>같은 ‘단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임천자, 장미수, 신목화가 각각 기적·겨우·단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은 특히 깊게 남았다. 인물마다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그 차이가 결국 그들의 삶과 마음에 어떤 무게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같은 행동도 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책 전반에서 크게 와 달았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라보다, ‘단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책이었다. 또 나와 다른 시선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독서클럽 활동이 뜻깊었다.</p>
	2	민경욱 (2393102)	<p>이런 책을 처음 읽어 처음엔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앞부분이었다. 단 한 사람이라니, 제목에 이끌려 왔지만 생각과는 다른 책이었다.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책이었고 나무 냄새가 나는 책이었다.</p> <p>이 책을 읽고 나도 취미로 목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다. 실제로 목공소를 알아보기도 하였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p>
	3	배도현 (2293094)	<p>사람들과 책으로 토론하는 것이 오랜만이어서 새로웠다. 4명이 각자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었고 느끼는 게 다른 부분은 논의하는 과정이 재밌었던 것 같다. 또한 학과 교수님과 토론하는 것도 평상시에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독서클럽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신청하고 싶다.</p>
	4	이채원 (2393076)	<p>이번 독서클럽에서는 인물들의 서로 다른 감정과 시점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음. 특히 ‘임천자의 단 한 명은 기적, 장미수의 단 한 명은 겨우, 신목화의 단 한 명은 단 한 사람’이라는 문장을 두고 모두가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지는 점이 흥미로웠음. 누군가에게 저주처럼 느껴지는 일이 또 다른 인물에게 스스로 선택한 희망이라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음. 또 다른 팀원들의 해석을 들으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장면들도 새로운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월화의 사랑 방식이나 목화의 라일락 나무에 담긴 상징처럼, 각자 관심을 가진 장면이 달라서 더 풍부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시선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팀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고, 덕분에 작품 전체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p>
	5	장수정 (2393033)	<p>본 책을 읽기 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제목의 [단 한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는 점이었다. 혼자 책을 읽으며, 또 클럽원들과 토론하며 고민한 결과 결국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단 한 사람이라는 건 유일하다고 느껴지고, 유일하다는 것은 특정한 대상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지만, 그 대상이 ‘누구’에게 유일하다고 여겨지는가를 떠올려본다면 우리 모두 어느 누군가에겐 단 한 사람으로 존재할 것이다. 루나의 나무에게는 루나가 단 한 사람일 것이며, 복일에게는 미수가 단 한 사람일 것이다.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즐거웠다.</p>